



장휘국 시교육감 업무 인수·인계 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7일 광주시 남구 금호평생 교육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육감직 인수·인계 업무보고'에서 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장 당선자는 이날 무상급식, 혁신학교 운영, 교육비리 극복 등 선거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학원 교습 밤 10시 까지

도의회 13일 조례개정안 처리 방침 ... 규정 어기면 처벌

빠르면 11월부터 전남지역 학원 수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제 255회 임시회 기간 중 13일 교육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됐다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뒤 폐지됐던 안건으로, 조례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 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 한 달 뒤부터 일정 시간 이후 학원 심야 수업을 제한하고, 이 규정을 어기 운영하는 학원들은 처벌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관련,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

으로 학원교습시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여론이 많아 교습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5만8457명을 대상으로 학원설치교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5.2% (16만7817명)가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조사 대상자 12만9946명 가운데 62.1% (8만 3500명)가 학부모는 11만4624명 가운데 62.7% (7만4390명), 교사는 1만 3887명 중 70.9% (9927명)가 밤 10시로 교습 시간을 단축하는데 긍정적 답변을 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는 학생들의 경우 36.1% (4만3901명), 학부모 35.

5% (3만7935명), 교사 26.8% (363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원연합회는 98.14%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교사들의 경우 초·중학교에 비해 반

대한다고 답한 비율(학생 45.2%·학

부모 43.7%·교사 36.9%)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도교육청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학원 운영자 등을 고려한 일부 교육위원회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조례안 처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조례안은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숙박학원 등록 관련 규정과 수강료 변경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교수 20% 이상
1년에 논문 한 편 안써

국회 교과위 서상기 의원

전남대 전임교원 10명 중 2명 이상이 1년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주요 국립대 전임교원 논문실적 현황(2008년)에 따르면 전남대 교원 1160명 가운데 20.7%인 240명의 논문 저술실적이 전무했다.

전문학술지 게재건수는 933편으로 1인당 평균 1건에도 못 미친 0.8건으로 집계됐다. 전문학술지 기준 미게재 비율은 29.0%로 10명 중 3명꼴이었으며 국내 일반 학술지 미게재율도 27.4%에 달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총북대가 6.3%로 가장 우수했으며 서울대 15.8%, 부산대 17.3% 등의 순이다.

서 의원은 "국내 박사급 인력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대학에서 전임교원 상당수가 1년에 단 한편의 논문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남대는 교원 논문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1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논문 게재비를 8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3년간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급을 삼각하는 폐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태반드링크' 임상시험 영터리

식약청 국감 주승용 의원

보건당국이 사람의 태반을 주성분으로 한 '태반드링크'의 피로회복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방식과 기준이 주목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자양강장제인 태반드링크의 피로회복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의 제품을 마신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로회복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설문방식으로 이뤄져 효능입증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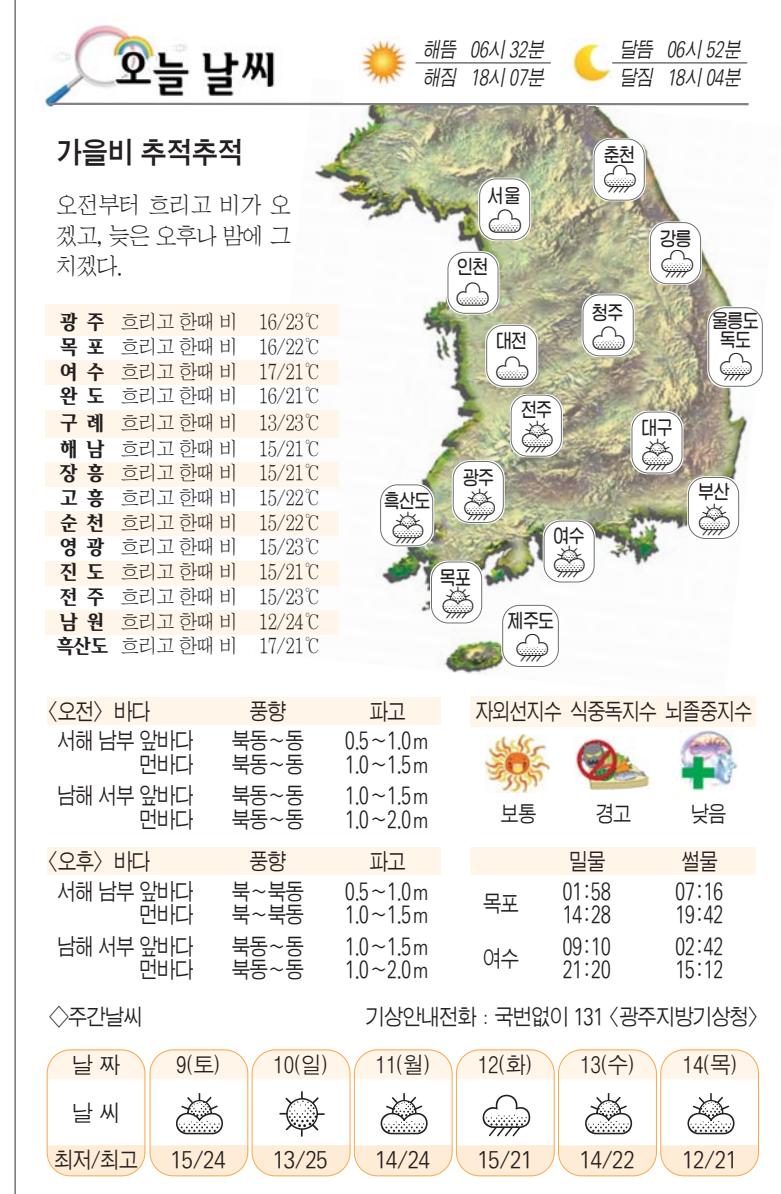
지난해 6월 제출된 태반드링크 임상시험 보고서에는 유니메드의 유니센타 4주 효과, 광동제약의 파워라센, 구주제약의 구주프린센타,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액, 경남제약의 자하생력 등 4개 제품은 2주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발표됐다. 임상시험은 312명의 소비자가 매일 한 병씩 4주간 먹어보고 나서 2주째, 4주째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로회복 효과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주 의원은 "통상 2주간 효과가 있다 하면, 1병을 먹으면 2주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데 2주 효과는 매일 한 병씩 먹었더니 2주간 효과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태반드링크는 이처럼 피로회복 효과는 의문이 되는데 반해 약국에서 7000원~1만 2000원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문제이며, 임상시험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유발 가능성 있는 먹는 여드름치료제가 국내에서 매년 100억원씩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 큰 65세 이상 노인,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으로 약 4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가능성 있는 닭·오리농장 종사자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와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장터

전복장을 찾으시는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약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신선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홀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품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미친만찌

그동안 함양옻닭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며,
2000년 8월 4일 개업이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정성으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후 30분이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토종 참옻닭 | 옻 청동오리 | 옻 삼계탕 | 촌닭 백숙 | 삼계탕

지리산 함양 참옻닭

예약 전화 062-515-5757
북구 유동 9-3(삼성병원 뒷면)